

CBS 경영진은 울산국을 기어코 소멸의 길로 몰아넣을 생각인가?

지난해 말 울산에서는 국장급 인사가 연이어 났다. 경영기획국장은 부산, 보도제작국장은 서울로 자리를 옮겼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한솥밥을 먹은 선배이자 동료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회사는 이들이 떠난 자리를 채워주지 않는단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2개의 국장 자리를 비워둔다고 한다. 대신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팀장급 인사를 단행해 팀 체제로 조직을 축소 운영할 예정이란다. 조합원에게 사실상 간부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제 울산국에 남은 국장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최근 몇년간 연 이은 인력 감축 결정으로 11명이었던 울산국 소속 직원은 7명으로 줄었고, 그로 인해 조직은 활기를 잃었다. 조합원들은 기존 업무를 소화하는데 급급할 뿐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없다.

회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울산국의 인력난을 가중시켜 왔다. 본사로 파견 간 PD의 자리를 채워주지 않았고, 정년퇴직한 기술국장의 자리를 메워주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 인사를 통해 2명을 추가 감축했다.

조합원들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낀다. 경영이 더 악화하면 이번엔 내가 떠날 수도 있다는 분노 섞인 걱정. 경영진은 제대로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TO조차 무시한 채 지역국의 요구에 눈 감고, 귀를 닫았다. 아무런 비전 제시도 없이 경영 논리로 끊임없이 인력 감축만 단행하는 사측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울산 조합원들은 경영진에게 요구한다. 사람을 줄여 경영 실적을 개선하려는 ‘언 밭에 오줌 누기’식 인사를 이젠 멈춰달라.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할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십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경영 환경이 개선되면 인력 충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를 개선해달라.

우리는 ‘사랑하는 울산국’을 소멸의 길로 내모는 사측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026. 01. 06.